

애완용부터 사료까지... 농가소득 新 블루오션 '곤충산업'

전남농기원, 갈색 거저리 닭 사료 첨가 산란율 향상 확인 곤충사료 특허 출원키로...전남 사육 농가 57곳으로 늘어

곤충이 지역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전남지역에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57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물론 애완학습용에서 사료용까지 그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2년간 '갈색 거저리'에 주목했다.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갈색거저리를 꾸준히 닭에게 먹여더니 육질이 좋아지고 산란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료양도 좋았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축 사료원료를 대체하기 위해 유용곤충의 사료첨가제를 개발 과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갈색거저리를 선정해 실험한 결과다. 양계용 사료시장은 연간 4조원(474만8000t)대로, 곤충 사료첨가제

는 약 4000억원대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도 농업기술원은 판단하고 있다.

갈색거저리의 대량 생산 및 양계농가 공급이 곤충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농가 소득원 창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갈색거저리는 밀기울(밀에서 가루를 제외하고 남은 찌꺼기)과 채소를 섞어 먹이를 주고 섭식 25~28도, 습도 60%를 유지할 때 가장 잘 자란다. 이렇게 자란 갈색거저리를 산란용 닭에게 사료첨가제로 공급하면 산란율 10~15%, 알 신선도 4~10% 향상되고, 육질 측면에서는 불포화지방산이 5% 증가하면서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산은 11%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갈색거저리와 함께 귀뚜라미도 '후보'에 올랐으나 사육 비용이 더 들어 탈락했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 측은 육계 및 산란계 사료 첨가제에 알맞게 분말, 과립 등의 형태를 고안한 뒤 양계용 곤충 사료 첨가제 제조방법 특허출원 및 산업체 기술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곤충 가운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등이 애완학습용, 벼메뚜기, 번데기 등이 식용, 땅강아지 등이 낚시용으로, 갈색거저리와 귀뚜라미 등은 주로 새나 파충류의 먹이로 쓰이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곤충의 새로운 효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2년간 닭 사료첨가제로 쓰기 위해 연구한 갈색 거저리.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 상생이 미래다' 1면에서 계속

정책 상호연계·보완 나서야

인구 감소 추세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세종 12만9669명, 대전 153만5415명, 충남 205만6156명, 충북 157만5073명 등으로 충청의 인구는 529만631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호남은 광주 147만3697명, 전남 190만6487명, 전북 187만1333명 등으로 525만151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충청과 호남의 인구가 역전된 이후 1년 사이 그 간격이 4만4796명으로 벌어졌다. 1970년 호남의 인구는 565만 2000명으로 전국의 20.4%를 차지, 당시 충청(440만1000명)보다 약 125만명 앞섰다는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이러한 인구 통계는 곧바로 정부 정책 우선 순위, 예산 지원 규모, 국회의원 수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10대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20대는 대학 진학을 위해, 30대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민선 6기 핵심 구호로 내건 것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역소득은 언제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잠정)'을 보면 전국 시·도 평균 개인소득이 1447만원인데 비해 광주는

1405만원, 전남 1249만원, 전북 1315만원으로 모두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이 1485만원, 충남 1340만원, 충북 1339만원으로 각각 앞섰다.

인구 감소, 정치·경제력 감퇴 등의 위기를 광주와 전남, 전북이 각각 대책을 수립해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 전남, 전북이 각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역할을 나눠 지원하며, 혜택을 분산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갈등과 대립을 접고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의 미래 비전을 함께 찾는 것이야말로 호남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당장 전북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광주와 전남이라도 새로운 통찰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상호 연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내·외의 광역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 등의 상생협력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서둘러 의견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시아 교수-학생, 광주 도시재생 머리 맞댄다

70여명 참여 국제 도시학 포럼·하계 워크숍 전남대서 개막

아시아 주요 대학 도시설계·건축 분야 교수와 학생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연계한 도시 재생 모델 제시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6일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따르면 국제 도시학 포럼(IFoU·International Forum on Urbanism)과 하계 워크숍(Summer School)이 교수와 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대학교에서 5일 개

막했다.

이들은 이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현장과 광주폴리, 광주 동구 구도심 등을 방문했다.

이들이 광주에 모인 이유는 침체한 구도심을 되살려내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를 위해 행사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워크숍 등을 거쳐 문화전당 주변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015년 문화전당의 개관에 맞춰 광주 도심의 재생과 변화를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개발 전략, 구체적인 대안 등을 모색한다.

현재 광주시, 동구청이 문화전당 인근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이 제시할 대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IFoU는 도시설계 및 건축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포르대, 델프트공대,

바르셀로나공대, ETH취리히스위스연방공대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계워크숍은 IFoU에서 매년 전 세계의 도시 및 건축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는 하계강좌로, 올해는 오는 17일 까지 13일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IFoU Summer School에는 북경공업대학, 대만국립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 등에서 교수 5명과 학생 20여명이 참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거주 외국인 10% 증가 2만4466명

중국 국적 40% '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지난해보다 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외국인 주민은 전체 주민등록인구 147만 2910명 중 1.66%인 2만44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만2291명 보다 2175명(9.8%) 늘어난 숫자다. 다만 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1만7297명으로 70.7%나 됐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 근로자는 6737명(27.5%)이

였으며, 유학생 3202명(13.1%), 결혼이민자 3164명(12.9%), 외국 국적 동포 1740명(7.1%), 기업 투자자 등 기타 2454명(10.0%) 등의 순이었다. 또 국적별 현황은 중국 국적자가 9767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4576명(18.7%), 필리핀 1833명(7.5%), 캄보디아 1082명(4.4%), 미국 940명(3.8%), 일본 745명(3%), 기타 5523명(22.6%) 등이 뒤를 이었다.

구별로는 동구 1533명(6.3%), 서구 2811명(11.5%), 남구 2225명(9.1%), 북구 6540명(26.7%), 광산구 1만1357명(46.4%)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시정 비전 시민구호 공모

7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는 6일 "민선 6기 시정구호인 '더불어 사는 광주'와 병행표기할 시민구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민구호는 민선 6기 시정 철학과 목표를 반영하고 시정 가치나 비전을 표현한 10자 이내의 문구면 된다.

공모기간은 7일부터 14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로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다. 응모방법은 (우 502-702)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기획관실 시정구호 담당자 앞 또는 이메일 dolman720@korea.

kr, 팩스 062-613-2329로 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자체심사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7월 말 당선작을 발표하며, 최우수상 1명(상장 및 부상 50만원)과 우수상 1명(20만원), 장려상 3명(각 10만원) 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구호는 8월부터 '시정구호, 시민구호'로 병행 표기할 예정이다. 시민구호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당)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보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양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은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단비플라워

죽자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